

Teijin, 아시아 PC 메이저 급부상

2006년까지 중국에서 10만톤 생산계획 ... 5만톤 건설기업 JGC 선정

Teijin Kasei는 아시아 시장에서 선두기업이 되기 위한 PC(Polycarbonate)의 새로운 중기 성장전략에 착수했다.

중국의 No.1 5만톤 플랜트를 2003년 10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 2004년 말 완공해 시운전을 거친 후 2005년 4월 본격 생산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어 2006년까지 No.2 5만톤 플랜트를 건설해 1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Teijin은 일본 및 싱가포르의 기존설비와 함께 40만톤 생산능력을 확보해 톱 메이커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되며, 연구개발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병행해 2007년까지 영업이익 50억엔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Teijin Kasei는 지금까지 아시아 PC 수요증가에 대응하면서 CD-R과 DVD 등을 타겟으로 광학용에서 세계 1위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전기전자부품 및 자동차부품 등 일반용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및 싱가포르 거점의 생산설비를 증설함으로써 30만톤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OA기기와 전자공학 분야 수요기업들이 잇따라 생산공장을 이전하고 PC 세계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일반용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華東지역에서 현지공급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00% 출자한 생산기업을 설립했다. 총액 140억엔을 투자해 5만톤 플랜트를 신설할 계획이며 2003년 10월15일 기공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용으로 특화한 No.1 플랜트 건설기업으로는 PC공장 건설 및 중국진출 실적이 있는 JGC(日揮)를 선정했다. 2004년 말까지 완공해 2005년 4월 본격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국의 신 플랜트는 원료 Phosgene을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염소 및 가성소다는 현지기업에서 조달하게 되지만 제2의 공급원도 고려하고 있으며 2006-07년경 No.2 플랜트를 완공할 방침이다.

Teijin은 3개 생산거점의 총 생산능력을 40만톤으로 확대하고, 성장시장인 아시아에서 1위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자동차 분야의 헤드램프와 외장재, 특수 PC 등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수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11/05>